

단수적 용법의 ‘우리’

윤재학*†
경희대학교

Jae-Hak Yoon. 2003. Singular *Wuli* ‘we’. *Language and Information* 7.2, 1-30. This paper strives to characterize the singular use of the possessive marker *wuli* in Korean, frequently interpreted as ‘our’. Focusing on its singular use and plurality, we argue that *wuli* is no plural form of *nay* ‘my’, but that it just marks in-group membership. It is shown that the apparent plurality of *wuli* only arises as a by-product of the in-group membership marking. It is also presented that age and gender are important factors in selecting between *wuli* and *nay*. (Kyung Hee University)

Key words: 내집단(in-group), 외집단(out-group), 단수적 용법(singular use), 소유격 의미(possessive meanings)

1. 머리말

본 논문은 한국어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단수적 의미로 사용되는 ‘우리’에 관한 것이다.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 마누라’와 같은 구문에 나타나는 ‘우리’에 관한 고찰이다. 이러한 용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복수형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단수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학구적 논의 외곽의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종종 다른 언어와 비교해서 농담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일반인들의 관심을 받아 온 사용법임에도 불구하고, 언어학계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한 푸대접을 받아 왔으며,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까지의 문헌에서는 ‘우리 마누라’,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등에서 ‘우리’가 단수의 의미로 쓰인다는 고찰 이외에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단수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나열하고, 이에 대한 일반성을 포착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의 정확한 의미와 기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결론으로서 관형어 ‘우리’는 ‘내’에 대한 복수형이 아니라는 것을 주

*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번지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영어학과,
E-mail: jyoona@khu.ac.kr

† 본 연구 과정에서 친절히 질문에 응해 준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본 논문이 현재 정도의 내용적 완결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한다. 이 연구는 2002년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장한다. 이보다는 ‘우리’는 화자와 이 관형어의 제한을 받는 명사의 지시물이 특정한 내집단(內集團, in-group)과의 관련성을 표시하는 어휘라는 주장을 제시한다. 그리고 (학술논문 등의 문어체의 경우 이외에) 주제어/주어로서 등장하는 ‘우리’는 총칭문(generic sentence)에 국한되어 대조적으로 쓰일 때에만 나타난다는 사실도 밝힌다.

변화과정에 있는 언어현상에 대한 설명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종종 체험하게 된다. 한 동안 필자는 한국어 2인칭 ‘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 방언의 경우를 제외한 표준 한국어에서 ‘니’는 (1)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가능한데 반해, (2)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니’가 문자언어로서 문어체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이러한 사용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가. 니가 멀리 떠난 후 사랑인 줄 나는 알았네.

나. 니 꼬라지를 알아라.

다. 내가 왜 니 맘 모르겠니?

라. 그래 니 맘대로 해.

(2) 가. *니를 보면 내가 속이 터져.

나. *니 하나 믿고 내가 살아 왔는데 ...

다. *니의 가슴에 큰 멍에가 씌워져 있구나.

라. *니는 왜 나만 못살게 구니?

마. *니도 죽고 내(나)도 죽자.

바. *니 왜 여기 왔니?

(1)과 (2)의 자료를 정리하면, ‘니’는 관형어와 주어의 경우로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이며, (2바)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격조사가 표면에 나타나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가능한 사용환경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니’의 사용은 표준어 ‘네’의 사용환경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한국어 모음체계에서 ‘ㄱ’과 ‘ㄱ’의 구분이 사라진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 보았다. 이 구분이 사라지고 나니 ‘내’와 ‘네’의 구분이 사라져 결국 일종의 보정작용으로서 ‘네’가 ‘니’로 대체되는 현상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결론이 더 이상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표준어권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2)의 문장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도 급속한 변화과정에 있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의 주제가 변화의 확산이 비교적 전반적인 음운적, 통사적 변화가 아닌 개별 어휘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2. 단수적 '우리'

이 연구는 필자의 직관을 기초로 시작되었으며, 필자가 직접 응답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체적 발화상황을 설정한 후에 질문지법으로 49명의 표본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검토하였다. 단수적 용법의 '우리'는 주제어의 경우와 관형어로 쓰이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물론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일단 직접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두 경우 공히 복수의 형태가 단수적 상황에 쓰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2.1에서 주제어로서 사용되는 '우리'를 간단히 살펴보고, 2.2에 소개되는 관형어 '우리'를 주로 다룰 것이다.

2.1 주제어/주어로서의 '우리'

단수적 용법의 '우리'가 주어로서 등장하는 경우는 아래 (3), (4)와 같다.

(3) 우리는 설탕 없이는 커피 못 마시겠더라.

(4) 우리는 그런 때는 말로 안 해.

이런 문장류는 주로 1960년대 이전 출생자 등 중, 장년층에서 많이 사용하고 지방적 특성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구문이다. 기호나 성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사적인 진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되고 있고, 항상 타인의 행동과 대비시켜 말할 때 쓰인다. 예를 들어, 설탕을 전혀 넣지 않고 커피를 마신다거나, 끊임없이 투정을 부리는 아이에게 전혀 처벌을 하지 않고 받아 주는 아이의 부모를 다소 못마땅하게 여기는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2.2 관형어 '우리'

주제어로 사용되는 환경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경우가 '우리'가 관형어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아래의 논의에 소개하는 예에서는 가능한 한 상황을 항상 독점적 관계로 국한시키고자 한다. 논리적으로 불가피하게 공동의 관계인 '우리 나라'와 같은 경우 이외에는 예외 없이 독점적 환경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우리 형님'의 경우, 형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다른 동생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공동관계이기 때문에 화자가 본인과 다른 동생을 함께 지칭하여 '우리'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다.

자료 유형 1: 인간관계

(5) 가. 우리 아들이 전교에서 1등 했어요.

나. ??내 아들이 전교에서 1등 했어요.

(6) 가. 우리 남편은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TV만 봐요.

나. ?내 남편은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TV만 봐요.

(7) 가. 아이구 우리 손주 뽀뽀 한 번 하자.

나. ??아이구 내 손주 뽀뽀 한 번 하자.

(8) 가. 아이구, 우리 강아지 여기 왔어.

나. ??아이구, 내 강아지 여기 왔어.

(9) 가. 우리 형님이 어제 집에 오셨어요.

나. #내 형님이 어제 집에 오셨어요.

(10) 가. ??우리 동생 혹시 못 보셨어요?

나. 내 동생 혹시 못 보셨어요?

(11) 가. 어제는 우리 부하직원들이 찾아 왔어요.

나. 어제는 내 부하직원들이 찾아 왔어요.

(12) 가. 내가 좀 바쁘니까 우리 강아지 동물병원에 좀 데려다 줄래?

나. 내가 좀 바쁘니까 내 강아지 동물병원에 좀 데려다 줄래?

(13) 가. 우리 지도교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사항이야.

나. ?내 지도교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사항이야.

(14) 가. ??이번 스승의 날에 우리 지도학생이 선물한 거야.

나. 이번 스승의 날에 내 지도학생이 선물한 거야.

(15) 가. #어제는 오랜만에 우리 약혼자를 만났어요.

나. 어제는 오랜만에 내 약혼자를 만났어요.

자료 유형 2: 장소

(16) 가. 술집도 적당한 데 없는데 우리 집 갈까?

나. ??술집도 적당한 데 없는데 내 집 갈까?

(17) 가. 우리 아파트로 오세요.

나. ??내 아파트로 오세요.

(18) 가. #우리 연구실로 가서 얘기 합시다.

나. 내 연구실로 가서 얘기 합시다.

(19) 가. 우리 사무실로 올래?

나. 내 사무실로 올래?

(20) 가. #우리 고향은 정선이야.

나. 내 고향은 정선이야.

자료 유형 3: '소유'관계

(21) 가. #내가 좀 바쁘니까 세탁소에서 우리 옷 좀 찾아다 줄래?

나. 내가 좀 바쁘니까 세탁소에서 내 옷 좀 찾아다 줄래?

(22) 가. #우리 생일은 10월 3일입니다.

나. 내 생일은 10월 3일입니다.

(23) 가. ??우리 차 어디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나. 내 차 어디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3. 선행연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표준 국어문법서의 하나인 남기심, 고영근(1985)에 다음과 같은 다소 피상적인 설명이 있다.

“‘우리’는 단수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나기도 한다.

(i) 지금까지 살펴 본 우리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위의 예문의 ‘우리’는 필자(글을 쓴 사람)를 대신할 수 있는 데 사람에게 따라서는 ‘나’를 쓰기도 한다. 의미상으로는 명백히 단수이나 이렇게 복수 형태가 쓰이고 있다. 이런 의미의 ‘우리’는 논문이나 논설문 등에서 서술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을 때 채택될 수 있다.

단수적 용법의 ‘우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나라’에서도 나타난다. ‘우리 집’은 상황에 따라 ‘내 집’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나머지는 ‘*내 아버지, *내 오빠, *내 학교, *내 나라’가 불가능하거나 자연스럽게 못해 보인다. [중략] ‘우리’의 꾸밈을 받는 말이 가족이나 구성원들의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 아닌 ‘우리’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다.”

남기심, 고영근은 단수적 용법의 ‘우리’의 사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학술논문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로서 “서술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을 때” 채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둘째로는 ‘우리’의 수식을 받는 대상이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쓰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 2.2에 나열한 자료의 몇 가지 경우에서 관찰되듯이 논리적으로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독점적 관계의 경우에도 ‘나’보다 ‘우리’를 쓰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한국어 ‘우리’에 독특한 점이며, 반면에 학술논문에 나타나는 단수적 용법은 영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위의 서술은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이라고 평가된다.

이에 반해 신기현(2000)은 ‘내’와 ‘우리’의 차이가 단순한 수적인 차이 이상이며 ‘우리’의 경우 존경과 지위를 나타낸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두 어휘사용의 중요한 변인을 구분해 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그의 논문에서는 다음 (24), (25)와 같은 차이점을 근거로 서열관계가 ‘우리/저희’와 ‘내/제’의 선택의 결정요인으로 파악했다.

(24) 가. 저희 형님 내외분이십니다.

나. ??제 형님 내외분이십니다.

(25) 가. 제 동생을 잘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 우리 동생을 잘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윗사람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는 (24)의 경우처럼 ‘우리’가 쓰이고, 아랫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25)처럼 ‘내’가 쓰인다는 것이다. 이 관찰은 (24), (25)의 경우 뿐만 아니라 위의 (5)-(23)에 나열된 자료의 상당부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한국어 화자들이 일종의 피라미드의 은유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한다. 즉,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는 일 대 일의 관계(one-to-one relation)가 아니라 일 대 다의 관계(one-to-many relation)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의 우두머리에 여러 명의 부하가 있는 것으로 설정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과는 상관없이 윗사람을 지칭하는 경우 공동의 ‘우리’를 쓰며, 아랫사람의 경우에는 화자가 윗사람이 되므로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아 단수의 ‘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신기현은 또한 Brown and Levinson(1987)을 인용하여 함축의 발생으로 인하여 의미적 사용(semantic-based usage)에서 화용적 사용(pragmatic-based usage)으로 변화하는 3단계의 한 예로서 ‘우리’를 제시한다. 그는 이 3단계 중에서 현재의 ‘우리’가 변화의 제 2단계 과정에 있다고 본다. 제 1단계에서는 ‘내’와 ‘우리’가 순수하게 단수와 복수의 구분만이 존재했었고, 향후 마지막 단계인 제 3단계에서는 ‘우리’가 복수의 기능은 상실하고 존경이나 사회적 위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전혀 다른 기능으로만 사용되어 현재의 ‘우리’가 갖는 복수의 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어휘가 출현할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필자는 서열관계가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신기현(2000)처럼 서열관계가 '내'와 '우리'의 선택에서 유일한 결정요인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설명이 요구되는 자료 중에서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와 같은 예는 서열관계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남편을윗사람으로 볼 경우, 아내가 아랫사람이 되어 '우리 마누라'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며, 동등한 관계로 보고 동등관계까지 '우리'를 쓰는 것이라고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보다 '내 친구'가 더 적절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내'와 '우리'가 순수하게 단수, 복수의 대조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도 '우리'를 어원적으로 고찰할 때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4. 자료분석

4.1 주제어/주어로서의 '우리'

학술논문과 같은 문어체에서 단수 대신 복수를 쓰는 경우는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단수적 '우리'와 구별된다. 우선, 이 경우의 '우리'는 장르에 따른 문체의 일종으로서 텍스트 내의 구체적 상황의 차이에 따라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한국어에만 국한되는 사용이 아니고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와 같은 문체가 존재한다. 둘째, 학술논문에 나타나는 '우리'는 주제어로서도 사용되며 관형어 형태로도 똑 같이 규칙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가 다룬 단수적 '우리'는 주제어로 사용되는 경우와 관형어의 사용에서 표면적으로는 사용 가능한 상황에 관한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는다.¹ 따라서 두 가지 경우는 별개의 구문으로 간주하고, 상황에 따라 허용성 여부가 결정되는 단수적 '우리'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기로 한다.

위에서 (3), (4)와 같은 문장들은 항상 대조적인 환경에서 쓰인다는 점을 지적했다.²

(3) 우리는 설탕 없이는 커피 못 마시겠더라.

(4) 우리는 그런 때는 말로 안 해.

이는 (26)과 같이 특수조사 '는'을 주격조사 '가'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26) 가. #우리가 설탕 없이는 커피 못 마시겠더라.

나. #우리가 그런 때는 말로 안 해.

¹ 설문응답에서 주제어로서 단수적 '우리'를 자주 사용하는 응답자들이 관형어 '우리'의 사용도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확인해 보았으나 둘 사이의 관계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² 엄밀하게 말하면, 대조와 상반되는 경우로서, 동조하는 의미로 특수조사 '도'를 쓰는 것이 허용된다.

(i) 가. 우리도 설탕 없이는 커피 못 마시겠더라.

나. 우리도 그런 때는 말로 안 해.

또한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우리’가 사용되지 않는다.

(27) #우리는 지난 번 마누라 생일에 장미를 선물했어요.

[저는 어제 아내 생일에 향수를 선물했어요.]에 대한 응답으로

이는 다음의 문장과 대조가 된다.

(28) 우리는 장미를 선물해요.

[저는 아내 생일에 향수를 선물합니다.]에 대한 응답으로

위 문장 (27)과 (28)의 차이는 다름 아닌 총칭성(genericity)이다. 오직 총칭문(generic sentence)에만 단수적 ‘우리’가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문에서 화자는 자신의 기호, 성향, 의견 등 매우 개인적 관점을 표출하는데 ‘나’ 대신 ‘우리’를 사용하여, 이러한 성향을 가진 집단의 존재를 전제하고 자신이 그 집단에 속한다고 천명함으로써 자신의 성향을 정당화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취향을 유력한 대안으로서 강하게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주장은 아래 (29)와 같은 문장에서 (3), (4)를 사용하는 화자들 중 일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용되지 못하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입증된다.

(29) ??우리는 토요일마다 도봉산에 가요.

[저는 자주 북한산에 갑니다.]에 대한 응답으로

비록 이 문장은 대조적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총칭문이지만 (3), (4)의 경우와 달리 일부 화자에게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총칭문이 ‘우리’ 사용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며,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향집단이 구성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장 (29)가 위 (3), (4), (28)과 다른 점은 커피에 설탕을 타서 마시는 사람들과 아내 생일에 장미를 선물하는 사람에 비해 토요일마다 도봉산에 가는 사람집단의 존재가 일반적으로 쉽게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 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집단의 구성 가능성은 물론 크게 보면 총칭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의 구성이 용이하고 규모가 크다는 것은 환언하면 총칭성이 크다는 것이다. 개체나 종류에 대해 특정한 사건을 기술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실/습관에 관한 서술을 하는 문장을 가리켜 총칭문으로 정의한다 (Krifka et al. 1995:10). 집단 구성의 용이성이 총칭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아래 예문 (30)의 대조에서 관찰할 수 있다(Krifka et al. 1995:10, Carlson 1977).

(30) 가. The Coke bottle has a narrow neck.

나. ??The green bottle has a narrow neck.

본 예문 (30가)의 코카콜라병은 이미 확립된 종류(“well-established kind”)로 집합의 구성이 용이한 반면, (30나)의 녹색병은 이러한 지위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대조로 파악되고 있다. 총칭성이란 특칭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특칭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해당되는 집합의 규모가 작아지고 이에 따라 총칭성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칭문 중에서도 특칭적/비특칭적 수식어 존재의 여부에 따라서 총칭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은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의 예문 (29)에 구체적 상황제시를 하는 수식어를 부가하여 총칭성을 감소시킨 예문 (31)은 (3), (4), (29) 등을 받아 들이는 화자 대부분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31) #우리는 단풍철이면 토요일마다 오전 9시에 도봉산에 가요.

이상과 같이 총칭성이 주제어로 사용되는 단수적 용법의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확인된다.

4.2 관형어 '우리'

관형어 '우리'의 사용을 결정하는 데에는 서열관계와 내집단의 개념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파악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2.1 내집단(in-group)의 개념. '우리' 사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내집단'(內集團, in-group)이라는 개념이다. 대표적 의미로서 '우리 X'가 표시하는 것은 X에 의해 지칭되는 개체가 화자와 동일한 내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다.³ 복수의 개념은 '우리'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복수의 개념과 상충되지 않으면 외연적으로 '내'의 복수적 상황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내'의 복수의 개념으로 흔히 이해되는 것은 '우리'가 '내'의 복수의 개념과 호환적인 상황이 비교적 대다수인 결과로 인해 야기된 것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다섯 가지의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우리' + 고유명사

'우리'가 고유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이 구문은 고유명사가 지칭하는 개인이 화자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생물일 경우), 화자가 속하는 단체가 점유하는 지역, 또는 그 단체 자체라는 것을 표시한다. 이러한 경우의 예로서는 아래 (32)를 들 수 있다.

(32) 가. 우리 네로를 잘 부탁해.

나. 우리 종필이를 잘 부탁해.

다. 우리 노사모에서는 ...

라. 우리 대한민국

마. 우리 연변에서는 ...

바. 우리 카사블랑카를 잘 부탁드립니다.

³ 정확히 말하면, 이 대표적 의미 이외에도 아래 (가)에서 명시하듯이 X가 내집단이 속하는 지역 혹은 내집단 자체를 표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32가, 나)의 경우에는 ‘네로’ 및 ‘종필이’가 지칭하는 개체가 화자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이며, (32다)는 ‘노사모’는 화자가 속하는 단체 자체를 표시한다. (32마, 바)의 경우에는 화자가 속하는 단체가 점유하는 지역을 표시하고, (32라)의 경우에는 지역이나 단체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예의 경우 (33) 예문과 같이 ‘우리’ 대신 ‘내’를 쓰면 비문이 된다.

(33) 가. #내 네로를 잘 부탁해.

나. #내 종필이를 잘 부탁해.

다. #내 노사모에서는 ...

라. #내 대한민국

마. #내 연변에서는 ...

바. #내 카사블랑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34)의 예문처럼 고유명사를 보통명사로 교체하는 경우, 적합성이 호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점적 관계의 경우인 (34가, 나, 바)에서는 이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34) 가. 내 고양이를 잘 부탁해.

나. ?내 아들을 잘 부탁해.

다. ??내 팬클럽에서는 [회원으로서 소속된 경우]

라. #내 나라

마. ??내 지역에서는 ... [cf., 내 구역에서는 (신문, 우유배달 지역)]

바. 내 술집을 잘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32)와 (34)를 비교하여 볼 때, ‘우리’의 사용은 같은 집단의 소속임을 표시하여 애정을 표출하는 기능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우리’ + 장소(보통명사)

이 경우에는 아러 (35가,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다.

(35) 가. 우리 나라,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 고향

나. #내 나라, #내 마을, #내 동네, 내 고향

여기에서 차이를 발생하는 고향이 나라, 마을, 동네와 구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이는 바로, 나라, 마을, 동네는 공동사회의 한 단위를 구성하는 반면, 고향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을과 동네 등은 사람들이 속하게 되는 단체인 반면, 고향은 반대로 특정인의 여러 특성(attributes) 중의 하나인 것으로 개념자체가 인간에게 종속적이다. 고향은 함수적인 관계로서 누구의 고향으로서 의미가 있지 독립적인 ‘고향’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다음 문장 (36)에서 비교될 수 있다.⁴

(36) 가. 여기는 참 좋은 나라/마을/동네야.

나. #여기는 참 좋은 고향이야.

‘고향’과 같이 단체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의 함수로 나타나게 되어 ‘우리’보다는 ‘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단어로는 ‘본적지’, ‘주소’ 등이 있다.

(37) 가. #우리 본적지/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내 본적지/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이 나라, 마을, 동네 등과 다른 점은 고향으로는 집단 구성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이며, 이는 곧 ‘우리’가 내집단 표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 ‘우리’ + 단체

다음의 문장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성에 차이가 난다.

(38) 가. 여기는 내 학교야.

나. 우리 학교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39) 가. 내 회사를 왜 내 맘대로 경영 못하나요?

나. 우리 회사는 노사의 인화단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⁴ 한 심사위원은 (36)의 수식어 “참 좋은” 대신 “발전시켜야 할”과 같은 수식어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대조가 없어진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경우 “고향”을 “고장”의 의미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며, 아래 (i)과 같이 다른 수식어를 대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용성에 있어서 동일한 대조성이 유지된다.

(i) 가. 여기는 유명인사를 많이 배출한 나라/마을/동네야.

나. #여기는 유명인사를 많이 배출한 고향이야.

일부 화자에게 ‘우리 고향’이 단수적 환경에서 가끔 쓰이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아래 (ii)와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조는 존재하는 것이다.

(ii) 가.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나. #우리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38가), (39가)는 재단 이사장과 오너 사장의 입장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언급할 때만 적절하지만, (38나), (39나)는 소유지분과 상관없이 재단 이사장, 교직원, 학생 등 해당 기관에 소속된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물론 내집단 구성원 간의 대화에서 뿐만 아니라 청자가 외집단(外集團, out-group)의 구성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비슷한 결과가 다음의 문장에서도 나타난다. 직장 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면서 특정 지점을 가리키면서 말을 하는 경우, (40가)는 소유권에만 국한된 것이고, (40나)는 공동 소유권은 물론 이와 무관하게 화자의 주거장소에 관한 언급일 수 있다.

(40) 가. 저거 내 아파트야.

나. 저거 우리 아파트야.

소유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이며, 주거는 공동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라) 단체의 구성 요건

다음 (41가)는 소유관계가 아닌 경우 ‘우리’가 사용되지 않는 구문들이다. 반면에 (41나)는 허용된다.

(41) 가. #우리 술집/식당/가게 [고객으로서 자주 가는 장소일 경우]

나. 우리 시장(market)/시청

시장과 가게의 차이는 무엇인가. 시장은 지역주민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장소)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집단 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반면, 술집이나 식당, 가게의 경우 단골이라 할지라도 그 곳의 단골 고객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15)의 문장들의 대조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약혼자는 아직 가족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용이 허가되지 않는다. 굳이 공동체를 이루려면 약혼한 두 사람만의 공동체로서 결혼 이전까지만 존재하는 임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사용될 정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15) 가. #어제는 오랜만에 우리 약혼자를 만났어요.

나. 어제는 오랜만에 내 약혼자를 만났어요.

같은 맥락에서 (18)과 (19)의 차이도 설명이 가능하다. 교수 연구실은(비록 조교 한 명이 상주하는 경우라도) 공간적으로 독점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무실은 책임자인 소장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이 일반적으로 상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18) 가. #우리 연구실로 가서 얘기합시다.

나. 내 연구실로 가서 얘기합시다.

(19) 가. 우리 사무실로 올래?

나. 내 사무실로 올래?

어떤 개체가 물리적인 위치에서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1)과 (23)을 고찰하자. '옷'과 '차'가 '남편', '아버지' 등과 대조가 되는 것은 생물과 미생물의 차이도 있지만 이 단어들이 지칭하는 대상의 존재 목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1) 가. #내가 좀 바쁘니까 세탁소에서 우리 옷 좀 찾아다 줄래?

나. 내가 좀 바쁘니까 세탁소에서 내 옷 좀 찾아다 줄래?

(23) 가. ??우리 차 어디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나. 내 차 어디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옷'과 '차'는 존재의 목적 자체가 화자의 독점적 소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남편'과 '아버지'가 지칭하는 사람은 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을, 즉 가족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 화자의 '집'과 '아파트'는 '옷'과 '차'와 유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 '우리 아파트'가 더 자연스럽다. 이는 혼자 사는 경우보다 가족생활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 집', '우리 아파트'가 습관적으로 쓰인 결과 독점적 상황에서도 소위 일종의 잔상효과 때문에 '우리'가 선호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그러나, '옷', '차'의 경우는 본래부터 독점적 소유의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잔상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차의 경우는 다소 공동소유의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에 '우리 차'가 '우리 옷'에 비해 덜 어색하다.) 아래 설문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잠시 고려하면, 무생물에 대한 단수적 '우리' 사용의 정도에서 '집', '아파트', '차', '옷'은 각각 $0.1 < 0.43 < 0.92 < 1$ 로서 '우리 집'이 가장 자연스럽고 '우리 옷'이 가장 부자연스러운 순서를 보인다. 이론적으로 볼 때에는 내집단 구성 가능성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사용이 가능한 구성원의 자격으로 지리적 요건도 포함될 수도 있다.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 적절성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예문 (42), (43)을 비교하자.

(42) [발화장소: 한국 내, 한국인 사이의 대화]

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정이 많아.

나.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아.

(43) [발화장소: 해외, 한국인 사이의 대화]

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정이 많아.

나.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아.

발화장소가 한국 내인 (42)의 경우에는 조국의 의미를 가진 우리나라를 사용하는 것이 이를 한국으로 지칭하여 지나치게 객관화하는 것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43)의 발화상황과 같이 해외체류 중인 한국인들이 한국에 있던 시절을 지칭할 때, '제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다고 느낀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인 호칭으로 '한국'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영토를 벗어나 점유 상태가 아닌 경우에 '우리나라'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 내집단 vs. 외집단

설문조사의 결과 독점적 소유의 경우 (12)의 문장에서 강아지가 3인칭으로 등장할 때는 '우리'와 '내'가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8)과 같이 강아지가 2인칭인 경우 '우리'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이는 내집단 구성원 사이의 대화에서는 '우리'를 통해 집단의식이 고양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12) 가. 내가 좀 바쁘니까 우리 강아지 동물병원에 좀 데려다 줄래?

나. 내가 좀 바쁘니까 내 강아지 동물병원에 좀 데려다 줄래?

(8) 가. 아이구, 우리 강아지 여기 왔어.

나. ??아이구, 내 강아지 여기 왔어.

유사한 형태의 개인적 경험으로는,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임용된 지 일 년 후에 어느 모임에서 선배 교수 한 분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을 때였다.

(44) 우리 학교 언제 오셨어요?

필자는 이 질문이 매우 무례하고 배타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임용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외집단 사람으로서 내집단에 합류를 묻는 것인데, 이런 경우의 '우리 학교'를 사용하는 것은 필자를 아직 내집단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보류하는 듯한 추론 때문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 (45)처럼 고유명사나 지시적 관형어를 써서 객관화하는 것이 더 적절한 질문이었을 것이다.

(45) xx 대학교/이 학교에 언제 오셨어요?

이와 같은 관찰은 '우리'의 사용이 배타적이라는 점에서 일견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상반된 결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화에서 청자를 내집단의 일원으로 간주하느냐의 여하에 따라 배타성이 결정된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치이다. 내 집단 구성원에 대한 애정은 이 집단에 속하지 않는 청자에게는 배타성으로 나타난다. 관형어 '우리'를 내집단 구성원 사이에 쓰는 것이 애정을 나타내는 것만큼 외집단 청자에게 쓰일 때는 배타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자의 입장에서 아래 (46가) 문장이 (46나)에 비해 거절의 강도가 높다.

(46) 가. 다시는 우리 집 오지마.

나. 다시는 여기 오지마.

이와 유사한 현상이 영어 문장에서도 관찰된다.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다음과 같은 발화가 이루어졌다면, (47가)의 문장은 매우 배타적 인상을 준다. 반면에 (47나)는 객관적 사실의 진술이다.

(47) 가. Spitting is considered a bad manner in our country.

나. Spitting is considered a bad manner in this country.

4.2.2 서열관계. 지금까지 논의한 내집단의 개념만으로는 아래 (9)-(14)에 나타난 대조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동생이던 형이던 동일 내집단 소속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성에서 극단적 대조를 보이고 있다.

(9) 가. 우리 형님이 어제 집에 오셨어요.

나. #내 형님이 어제 집에 오셨어요.

(10) 가. ??우리 동생 혹시 못 보셨어요?

나. 내 동생 혹시 못 보셨어요?

(13) 가. 우리 지도교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사항이야.

나. ?내 지도교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사항이야.

(14) 가. ??이번 스승의 날에 우리 지도학생이 선물한 거야.

나. 이번 스승의 날에 내 지도학생이 선물한 거야.

따라서 내집단 개념과 별개의 요인으로 서열관계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신기현(2000)의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다.

4.2.3 ‘우리’의 어원. 한국학을 연구하는 최준식(1997)은 ‘우리’는 ‘돼지우리’, ‘울타리’, ‘을 밑에 선 봉선화’에 나타나는 ‘을’과 ‘우리’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라고 지칭하여 ‘우리’에는 소유의 의미보다는 내집단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본래적인 의미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이러한 의미의 ‘우리’가 ‘내’로 대체되는 변화가 현재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광고 문구는 자연스럽게 들린다.

(48) 제 남편이에요. 능력도 있고 아내 사랑할 줄도 안답니다.

아래의 예에서 보면, 형제자매가 없는 독자와 같이 독점적 관계인 경우에도 (49가, 50가)는 자연스러운 반면, (49나, 50나)는 허용되지 않는다.

(49) 가. 저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 #저 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50) 가. 저 사람이 우리 남편입니다.

나. #저 사람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같은 의미의 단형 ‘우리 아버지’가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장형 ‘우리의 아버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두 형태가 다 받아들여진다.

(51) 가. 저 사람은 제 동생입니다.

나. 저 사람은 저의 동생입니다.

따라서, [‘우리’ + 명사] 구문은 굳어진 형태로서 주제어로 나타나는 ‘우리’와 구별되는 것이 입증된다. 이는 신기현(2000)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원래 내집단을 표시하던 ‘우리’가 ‘내’의 복수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5. ‘우리’의 의미

본 절에서는 먼저 일반적 소유격의 의미를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관형어 ‘우리’에 대한 진리조건적 정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5.1 일반 소유격의 의미

우선, ‘우리’와는 독립적인, 일반 소유격의 기본적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 (52)와 같이 매우 다양한 의미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된다 (Poutsma 1914: 41).

(52) a. possession: my brother’s books, the earth’s crust

b. origin: the pheasant’s nest, nature’s work

- c. subjective: Elizabeth’s reign, the horse’s breathing
- d. objective: Gordon’s murder, their kingdom’s loss
- e. measure: an hour’s interval, a shilling’s worth
- f. apposition: Tweed’s fair river, treason’s charge

물론 이러한 분류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소유의 의미가 바탕이며, 위와 같이 다양하게 확장되어 사용되는 것은 일종의 은유현상으로서 설명하려는 시도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Nikiforidou(1991)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은유 연결망에 의해서 전체와 부분(my hand), 가족 관계(John’s wife), 경험자-경험체 관계(the woman’s anger), 목적격 소유(the President’s murder) 등으로 확장되어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Taylor(1996: 5-6)의 경우에도 소유격 구문 John’s car에서 John과 해당 차량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상술하고 있다: 기본적 법적 소유의 관계; 사용 및 점유의 관계(돈을 주고 빌린 렌트차량); John이 디자인한 차량; 자동차 경주에서 John이 응원하는 차량 등 화용적 상황에 따라 거의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어의 일반적 소유격도 현상적으로 위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유격의 의미는 결합하는 어휘의 의미정보와 화용적 정보를 포괄하는 다소 융통성있는 관계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소유격의 의미를 poss-rel로 지정하고, ‘my’나 ‘내’와 같은 형태가 통사적으로 양화사로 다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아래 (53a,b)에 대한 의미를 (54)로 제시한다.

(53) a. 내 강아지가 돌아왔다.

b. My puppy came back.

(54) | 내 | => $\lambda P\lambda Q\iota x[\text{poss-rel}(x, s) \ \& \ P(x) \ \& \ Q(x)]$
 | [기호 ι 는 유일한 특정 개체에 대한 양화사를 s 는 화자를 나타낸다.]
 |
 | | 강아지 | => $\lambda y[\text{puppy}'(y)]$
 | / => $\lambda P\lambda Q\iota x[\text{poss-rel}(x, s) \ \& \ P(x) \ \& \ Q(x)](\lambda y[\text{puppy}'(y)])$
 | => $\lambda Q\iota x[\text{poss-rel}(x, s) \ \& \ \text{puppy}'(x) \ \& \ Q(x)]$
 |
 | | 돌아왔다 | => $\lambda y[\text{returned}'(y)]$
 | /
 | 내 강아지가 돌아왔다 |
 => $\lambda Q\iota x[\text{poss-rel}(x, s) \ \& \ \text{puppy}'(x) \ \& \ Q(x)](\lambda y[\text{returned}'(y)])$
 => $\iota x[\text{poss-rel}(x, s) \ \& \ \text{puppy}'(x) \ \& \ \lambda y[\text{returned}'(y)](x)]$
 => $\iota x[\text{poss-rel}(x, s) \ \& \ \text{puppy}'(x) \ \& \ \text{returned}'(x)]$

(54)에서는 ‘내’가 의미적으로 단순한 보통명사 ‘강아지’와 결합하는 매우 간단한 경우를 소개했으나, ‘남편’, ‘아내’, ‘아들’과 같은 관계적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들을 단순한 <e,t> 유형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유형 상으로 다소 복잡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관한 논의를 한 후에 ‘우리’에 관한 형식 의미론적 기술로 돌아 가도록 한다.

‘남편’, ‘아내’, ‘아들’과 같은 관계적 명사를 <<e>,<e,t>> 유형의 이항술어로 간주한다면, ‘내 아들’과 같은 표현을 위의 방식대로 기술한다면 (55)와 같이 나타내게 된다.

$$\begin{aligned}
 (55) \quad & | \text{내} | \Rightarrow \lambda \rho \lambda Q \iota x [\text{poss-rel}(x, s) \ \& \ \rho(x)(s) \ \& \ Q(x)] \\
 & \quad \quad \quad [\text{참고: } \rho \text{는 } \langle \langle e \rangle, \langle e, t \rangle \rangle \text{ 유형의 변수}] \\
 & | \text{아들} | \Rightarrow \lambda x, \lambda y [\text{son-of}'(x, y)] \\
 & | / | \Rightarrow \lambda \rho \lambda Q \iota x [\text{poss-rel}(x, s) \ \& \ \rho(x)(s) \ \& \ Q(x)] (\lambda x, \lambda y [\text{son-of}'(x, y)]) \\
 & \quad \quad \quad \Rightarrow \lambda Q \iota x [\text{poss-rel}(x, s) \ \& \ \text{son-of}'(x, s) \ \& \ Q(x)]
 \end{aligned}$$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내’의 논항으로서 등장하는 ‘아들’과 같은 관계적 명사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강아지’의 경우와 다르게 이항술어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새로운 유형을 허용하려면 ‘내’의 어휘목록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이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언어현상 중에는 이와 같은 추가 목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다음 (56)-(58)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56)의 경우 (a)의 ‘bake’는 상태변화에 관한 것이며, (b)의 ‘bake’는 창조에 관한 것이다. 또한, (57)의 경우 ‘wiped’의 논항이 (a) 문장에서는 두 개, (b) 문장에서는 세 개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동사의 어휘목록을 추가하거나, Pustejovsky(1995)의 방식처럼 동사는 그대로 두고 목적어 명사의 성격에 따라 목적어가 동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공동합성(co-composition)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56) a. John baked the potato.

b. John baked the cake.

(57) a. Mary wiped the table.

b. Mary wiped the table clean.

따라서, 이는 이론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 단순한 기술에서는 벗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둘째로는, (55)의 소유구문 ‘내 아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매우 비 직관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위에서 우리는 이 구문에서 다양한 소유관계는 poss-rel로 포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55)의 의미기술에서 소유관계는 son-of’라는 술어

에 의해 나타내어지고 poss-rel이라는 술어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son-of’라는 술어가 이 구문의 의미를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poss-rel은 어떤 관계를 포착해야 할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상의 관계는 son-of’라는 관계를 중복적으로 기술하는 것 이외에는 더 나은 대안이 없게 된다. 이럼으로써 결국 ‘내 아들’ 구문에서 논항에 속하는 명사가 소유관계를 설정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이다.

셋째로, (55)의 의미기술은 합성성(compositionality)에 위배된다. 일부의 명사들의 경우에는 관계적과 비관계적으로 중의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 명사로 개체들의 집합으로 볼 수도 있으나, ‘누구의 학생(제자)’의 의미로 관계적 명사로 해석되기도 하며, 이 경계가 매우 불분명하다. 아래 (58)에 ‘내 학생’을 비관계적 의미기술(a)과 관계적 의미기술(b)로 나타내어 본다.

(58) | 내 학생 | =>

a. $\lambda Q\lambda x[\text{poss-rel}(x, s) \ \& \ \text{student}'(x) \ \& \ Q(x)]$.

b. $\lambda Q\lambda x[\text{poss-rel}(x, s) \ \& \ \text{student-of}'(x, s) \ \& \ Q(x)]$

(58b)의 poss-rel은 결국 student-of’의 관계가 최대한으로 적합하게 이해되는 관계일 것이다. 반면에 (58a)의 경우에는 poss-rel(x, s)과 student’(x)라는 두 조건이 연합하여 student-of’라는 술어적 의미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a)와 (b) 두 의미기술에는 차이가 없다. 사실, 소유구문 자체가 명사를 관계적 의미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my house, my place, my school, my car 등의 구문도 모두 관계적으로 처리하여 (5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비관계적 구문과 의미적 구별이 되지 않는다.

(59) a. my house => $\lambda Q\lambda x[\text{poss-rel}(x, s) \ \& \ \text{house-of}'(x, s) \ \& \ Q(x)]$

b. my place => $\lambda Q\lambda x[\text{poss-rel}(x, s) \ \& \ \text{place-of}'(x, s) \ \& \ Q(x)]$

c. my school => $\lambda Q\lambda x[\text{poss-rel}(x, s) \ \& \ \text{school-of}'(x, s) \ \& \ Q(x)]$

d. my car => $\lambda Q\lambda x[\text{poss-rel}(x, s) \ \& \ \text{car-of}'(x, s) \ \& \ Q(x)]$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이항술어로 나타내고 있는 son-of’, student-of’, place-of’ 등은 관계적 명사의 의미기술의 범위를 넘어 소유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다. 환언하면, 이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나/I + POSS] + 명사]의 구조에서 명사부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I + POSS]의 의미까지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명사적 의미와 소유적 의미를 분리하고 이들의 합성을 통하여 son-of’, student-of’, place-of’ 등의 관계가 설정되도록 하는 것이 합성성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할 한 가지 방법으로는 관계적 명사를 모두 비관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내 아들’은 아래 (60)과 같이 ‘내 강아지’의 경우와 같이 기술하게 된다.

$$\begin{aligned}
 (60) \quad & | \text{내} | \Rightarrow \lambda P \lambda Q \iota x [\text{poss-rel}(x, s) \ \& \ P(x) \ \& \ Q(x)] \\
 & | \\
 & | \text{아들} | \Rightarrow \lambda y [\text{son}'(y)] \\
 & | / \Rightarrow \lambda P \lambda Q \iota x [\text{poss-rel}(x, s) \ \& \ P(x) \ \& \ Q(x)] (\lambda y [\text{son}'(y)]) \\
 & \Rightarrow \lambda Q \iota x [\text{poss-rel}(x, s) \ \& \ \text{son}'(x) \ \& \ Q(x)]
 \end{aligned}$$

마지막 단계의 $\text{poss-rel}(x, s) \ \& \ \text{son}'(x)$ 는 화용적 정보와 연합하여 $\text{son-of}'(x, s)$ 로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기술은 $\text{son}'(x)$ 의 논리식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명제의 형태가 아니고 누구의 아들인지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기술 방법이라는 반박이 예상된다. 이는 자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아래 (61)과 같은 담화가 흔히 발생하며, 이 경우에 관계적 해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61) a. 이번에도 아들이야?
 b. 철수는 아들이 있습니다.
 c. John has a son.

특히 (61b,c)의 경우에는 관계적 해석을 할 경우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의미가 되고 만다.

이와 같이 관계적 명사를 일반명사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현재까지의 소신이지만, 필자가 현재까지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경우의 논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들을 안전하게 이항술어로 처리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62)를 제시한다.

$$\begin{aligned}
 (62) \quad & | \text{내} | \Rightarrow \lambda P \lambda Q \iota x [\text{poss-rel}(x, s) \ \& \ P(x) \ \& \ Q(x)] \\
 & | \\
 & | \text{아들} | \Rightarrow \lambda y [\text{son-of}'(y, w)] \\
 & | / \Rightarrow \lambda P \lambda Q \iota x [\text{poss-rel}(x, s) \ \& \ P(x) \ \& \ Q(x)] (\lambda y [\text{son-of}'(y, w)]) \\
 & \Rightarrow \lambda Q \iota x [\text{poss-rel}(x, s) \ \& \ \text{son-of}'(x, w) \ \& \ Q(x)]
 \end{aligned}$$

여기에서는 자유변수 w 를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아들’은 일반명사와 같은 $\langle e, t \rangle$ 유형이 유지된다; 또한 $\text{son-of}'(x, w)$ 는 관계적 명사 의미만을 담고 있을 뿐 ‘내’의 의미를 담지는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의 중심의미인 $\text{poss-rel}(x, s)$ 과 ‘아들’의 의미인 $\text{son-of}'(x, w)$ 가 합동으로 $\text{son-of}'(x, s)$ 라는 결론을 도출하여 위에서 지적되었던 $\text{poss-rel}(x, s)$ 의 무의미성을 극복하였다.

5.2 '우리'의 의미기술

'우리'의 의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위 (62)의 틀에서 '내'에는 존재하지 않은 '우리'의 내집단 표시 기능이다. 이에 덧붙여 반영해야 할 내용은 일반적인 소유격의 poss-rel관계와 다르게 '우리'에서 표시하는 관계는 화자와 명사가 지칭하는 개체와의 직접적 관계가 아니라, 화자가 소속된 내집단과 명사가 지칭하는 개체와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위의 '내 아들'의 경우 poss-rel(x, s)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적합하지만, '우리 남편'의 경우에는 특정 내집단 A와 x 의 관계이다. 또한, 이 경우의 관계는 위의 논의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단수형태의 소유관계와 유사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단수소유격의 기술에 사용한 poss-rel의 관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를 감안하여 (63)의 '내 남편'에 대조적으로, '우리 남편'을 아래 (64)와 같이 나타내 볼 수 있다.

$$(63) \text{ |내 남편|} := \lambda Q \iota x [\text{poss-rel}(x, s) \ \& \ \text{husband-of}'(x, w) \ \& \ Q(x)]$$

$$(64) \text{ |우리 남편|} := \lambda Q \iota x \iota A [s \in A \ \& \ x \in A \ \& \ \text{husband-of}'(x, w) \ \& \ Q(x)]$$

[기호 ι 는 유일한 특정 개체에 대한 양화사를,
A는 '우리'와 관련된 내집단을 나타낸다.]⁵

이에 따르면 아래 문장 (65)의 진리조건은 (66)과 같이 나타내게 된다.

(65) 우리 남편이 웃는다.

$$(66) \iota x \iota A [s \in A \ \& \ x \in A \ \& \ \text{husband-of}'(x, w) \ \& \ \text{smile}'(x)]$$

진리조건 (66)을 풀어서 쓰면 아래와 같다.

- (67) a. 특정한 집합 A와 특정한 개체 x 가 존재하며,
b. 화자와 x 가 이 집합 A에 속하며,
c. 누군가의 남편이 웃는다.

그러나, (67a,b)에 해당하는 조건은 문장의 진리치에 관여하는 의미적 부분으로 포함시켜서는 적절하지 않고 전제(presupposition)로서 파악해야 한다. 논의의 편의상 아래 문장 (68)을 이용하여 (66)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우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고유명사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68)의 진리조건을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69)로 나타낼 수 있다.

⁵ 위 (64)의 조건에서 '우리'와 관련된 내집단을 나타내는 집합 A는 양화사 ι (iota)를 도입하여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내집단이 유일하며, 또한 이 집단의 존재성을 단언하는 것이다. 한 심사자가 제기한 질문처럼 이 집단의 유일성에 관해 의문을 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화자 또는 '우리'가 수식하는 명사의 외연이 속하는 집합은 무수히 많은 종류의 집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유일성이 영어의 정관사 the와 같은 한정표현(definite description)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한다. 주어진 발화 상황에서 대화 참가자는 수식되는 명사와 화용적 정보 등의 단서를 통한 범위제한(domain restriction)에 의해 최적의 집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집합이 유일한 집합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68) 우리 종필씨는 의사다.

(69) $\iota A[s \in A \ \& \ j \in A \ \& \ \text{doctor}'(j)]$, [참고: 종필 => j]

그런데 여성인 화자가 위 문장 (68)을 의사인 앞집 남편을 가리키며 발화했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진리조건 (69)에 따르면 화자와 종필씨라는 인물이 동일 내집단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즉, $s \notin A$ 또는 $j \notin A$), 이 문장은 거짓이 되는 결과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문장의 진리치가 거짓이라기보다는 남의 남편을 ‘우리 종필씨’라고 지칭하여 내집단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화용적으로 부적절한 문장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69)의 패턴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68) 문장의 부정형 (68')의 발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 문장의 진리조건은 (69')과 같이 나타내게 되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 즉, 부정의 이접조건이 되어서, 위의 상황에서 $j \notin A$ 는 참이 될 것이므로, ‘종필’이란 남의 남편인 의사에 대해 ‘우리 종필씨는 의사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결과적으로 참이 되고 만다.

(68') 우리 종필씨는 의사가 아니다.

(69') $\iota A[s \notin A \vee j \notin A \vee \neg \text{doctor}'(j)]$

따라서, (69)의 조건은 전제부분과 문장의 진리조건으로 아래 (70)과 같이 나타내야 한다.

(70) a. 전제: $\iota A[s \in A \ \& \ j \in A]$

b. 진리조건: $\text{doctor}'(j)$

물론, 이웃집 남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진행 중이라면 (68)과 같은 문장은 발화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당연히 두 인물은 내연의 관계를 이루는 동일 내집단에 속하게 되는 상황으로서 요구되는 전제가 충족된다.

다음 문장 (71)에 나타나는 대조현상도 마찬가지로 설명된다.

(71) a. #오늘 길거리에서 우연히 우리 전 남편을 만났다.

b. 오늘 길거리에서 우연히 내 전 남편을 만났다.

c. #오늘 길거리에서 우연히 우리 전 마누라를 만났다.

d. 오늘 길거리에서 우연히 내 전 마누라를 만났다.

이 문장 중에서 (71a,c)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화용적으로 부적합한 문장이다. 이는 우리의 이론에 따르면 내집단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현재 배우자 관계에 있다면 내집단 소속이 가능하지만, 이혼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내집단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72)에 예로 나열된 세 가지 유형의 '우리 X' 구문의 의미를 각각 나타내고, 이를 최대한 통합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 X'의 의미가 화용적 의미와 진리조건적 의미로 분리되는 것은 사실이나, 전제와 진리조건 부분을 병기하여 나란히 표기하면 논의의 전개 상 편리한 점이 있다. 우선, '우리'의 전제와 진리조건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여 전제적 조건이 대부분인 '우리'의 의미파악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두 조건을 병기하면 전제조건과 진리조건에 동시에 결속하는 변수 x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논리적 처리에 편의성이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전제와 진리조건을 병기하고, 다만, 전제된 부분은 밑줄 표시로 구분하도록 하겠다.

- (72) a. 우리 남편 [우리 + 사람] (아내, 아들, 엄마, 형님 등)
 : $\lambda Q \iota x \iota A [s \in A \ \& \ x \in A \ \& \ \text{husband}'(x, w) \ \& \ Q(x)]$
- b. 우리 지역 [우리 + 장소] (집, 마을, 나라, 학교 등)
 : $\lambda Q \iota x \iota A [s \in A \ \& \ \text{BOR}(A, x) \ \& \ \text{district}'(x) \ \& \ Q(x)]$
- c. 우리 단체 [우리 + 단체] (동호회, 클럽 등)
 : $\lambda Q \iota x \iota A [s \in A \ \& \ x = A \ \& \ \text{club}'(x) \ \& \ Q(x)]$

참고로, (72b)의 BOR(based-on-residence-of)은 지역을 기준으로 성립된 단체를 표시하기 위한 술어로서 BOR(A, x)에서 A라는 내집단은 x라는 지역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A의 모든 원소의 거주지는 동일하게 x이다. 이러한 조건은 BOR을 아래와 같이 정의함으로써 포착된다.

- (73) BOR의 정의:

$$\forall x, y, A; x, y \in A [BOR(A, x) \leftrightarrow \text{residence-of}(y) = x]$$

물론 (72b)에서 '거주지'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이 유형에 '우리 학교' 등과 같은 표현을 포함시킨 것으로 볼 때 엄격한 의미에서는 일반적이지 못하다. '우리 학교'에서 학교라는 장소는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거주지'는 '소속 거주지'(affiliated residence)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허용하기로 한다.

이제 '우리'가 고유명사와 결합된 구문의 경우를 살펴보자. 고유명사의 의미적 유형은 보통명사와 다르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구문에서는 '우리'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보통명사와 동일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취급하여 통합적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리' + 고유명사의 구문에 등장하는 고유명사는 고유명사 본래의 <e> 유형에서 유형상승규칙이 적용되어 보통명사 유형인 <e, t>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의미적 변화 없이 논리적 유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74)와 같은 한국어 구문 뿐만 아니라, (75)와 같은 영어 구문의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도 통사적 유사성에 기인하여 통합적 설명을 원한다면 이와 동일한 유형상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74) a. 우리 종필이
 b. 우리 연변
 c. 우리 노사모
- (75) a. My Chicago Bulls won the title.
 b. Is your Jennifer still at school? [Quirk et al 1985: 289]
 c. Did you know that your Mrs White has been arrested for shoplifting?
 d. John and Mary are very anxious about their Tom.
 e. Granny is delighted with Peter's Jane.

이에 따라, 고유명사는 일반적 개체유형인 <e> 유형에서 개체의 집합인 보통명사 유형인 <e, t>으로 상승하는 아래 (76)과 같은 상승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 (76) 고유명사 유형상승규칙:
 a. 고유명사가 소유격 형태의 관형어에 제한을 받는 경우 <e> 유형에서 <e, t> 유형인 유일 원소 집합(singleton set)으로 변경된다.
 b. 의미: $j \rightarrow \lambda x[x=j]$

이를 바탕으로 하면 위의 (74)의 구문들도 보통명사와 동일한 의미기술을 제시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77) a. 우리 종필이[우리 + 사람]
 $\lambda Q \iota x \iota A[s \in A \ \& \ x \in A \ \& \ x=j \ \& \ Q(x)]$, [참고: 종필이 $\Rightarrow j$]
 $\Rightarrow \lambda Q \iota A[s \in A \ \& \ j \in A \ \& \ Q(j)]$, 동일성의 원리
- b. 우리 연변[우리 + 장소]
 $\lambda Q \iota x \iota A[s \in A \ \& \ BOR(A, x) \ \& \ x=y \ \& \ Q(x)]$, [참고: 연변 $\Rightarrow y$]
 $\Rightarrow \lambda Q \iota A[s \in A \ \& \ BOR(A, y) \ \& \ Q(y)]$, 동일성의 원리
- c. 우리 노사모[우리 + 단체]
 $\lambda Q \iota x \iota A[s \in A \ \& \ x=A \ \& \ x=n \ \& \ Q(x)]$, [참고: 노사모 $\Rightarrow n$]
 $\Rightarrow \lambda Q \iota A[s \in A \ \& \ n=A \ \& \ Q(n)]$, 동일성의 원리

이상과 같이 '우리 X'구문의 진리조건과 전제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어 보았다. 논외에 따르면 사람, 지역, 단체 등 의미 유형에 따라 진리조건은 동일하나 전제에 있어서 다소 구별된다. 이 차이는 우리가 살펴본 유형에서는 $x \in A$, $BOR(A, x)$, $x=A$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우리’와 결합되는 명사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성격의 의미, 화용적 정보이므로 전제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부자연스럽거나 예측되지 않는 현상이 아니다. 이는 앞에서 다룬 일반 소유격의 의미로서 표기한 poss-rel과 유사한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동일한 의미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poss-rel과 다른 변수인 R을 사용하여 일반화한 의미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78) ‘우리 N’의 진리조건 및 전제: [N의 의미:= n’]

$\lambda Q \lambda x \lambda A [s \in A \ \& \ R(x, A) \ \& \ n'(x) \ \& \ Q(x)]$

- R(x,A) :=>
- a. $x \in A$ [N이 사람일 경우]
 - b. BOR(A, x) [N이 장소일 경우]
 - c. $x=A$ [N이 단체일 경우]

(79) ‘우리’의 진리조건 및 전제:

$\lambda P \lambda Q \lambda x \lambda A [s \in A \ \& \ R(x, A) \ \& \ P(x) \ \& \ Q(x)]$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단수적 용법의 ‘우리’구문은 화자가 발화상황에서 현저하게 부각되는 내집단 소속이며 ‘우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지칭하는 개체가 화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신 이 내집단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로서 명사의 의미유형에 따라 이 개체가 내집단의 일원이거나, 이 내집단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거나, 혹은 이 내집단 자체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이, 관형어 ‘우리’는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내’의 복수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하여 필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논리를 전개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회의적 시각을 견지하는 독자들은 의문은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 중 가장 큰 질문이라면 아마 “‘우리’가 내의 복수형이 아니라면, ‘내’의 복수형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알지 못한다. 필자가 본 논문에서 입증하고자 한 언어적 사실은 ‘우리’를 ‘내’의 복수형으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내’와 ‘우리’ 사이에는 복수형이라는 직접적 관계보다는 이들이 내집단이라는 개념을 통해 복수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러한 설명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이었다. 물론, ‘내’의 복수형이 무엇인지 따로 존재하고 이를 지적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나, 관형어 ‘우리’의 문제가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러한 복수형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상당 부분 ‘내’의 복수형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여기에서 본 논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된다. 자연언어는 모든 문법적 패러다임을 항상 완비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can*, *may*, *will*과 같은 범조동사 현재형은 과거형으로서 제시되는 *could*, *might*, *would*와 같은 어휘는 일반동사의 과거형과는 매우 다른 통사 의미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엄격한 의미에서 과거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내’의 완벽한 복수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것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본 논문의 주장이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반론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는 필자가 재직하는 대학교의 동료교수와 대학원생 및 학부생을 대상으로 편이성 표본추출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연령이 하나의 변인일 것을 가정하여 이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질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본 발표자가 직접 내용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켰다.

질문지는 아래 표 <1>과 같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를 선호하는 답에 0을 ‘우리’와 ‘내’를 똑 같이 선호하는 답에 0.5, ‘내’를 선호하는 답에 ‘1’을 할당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우리’를 선호하고, 1에 근접할수록 ‘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표시된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 신기현(2000)이 지적한 대로 인간관계에서 상하 위계가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형 vs. 동생은 0.3 vs. 0.73의 차이를 보였고, 지도교수 vs. 지도학생의 경우는 0.32 vs. 0.89의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할아버지(0.12)와 손주(0.14) 및 엄마(0.11)와 아들(0.16)의 경우는 이 척도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ii) 청자의 내집단 소속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청자가 내집단 소속일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리’의 사용률이 높았다. 2인칭 강아지 vs. 3인칭 강아지는 0.17 vs. 0.48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2인칭 조카 vs. 3인칭 조카는 0.16 vs. 0.54의 차이를 보였다.
- (iii) 영남, 호남지역과 나머지 지역, 혹은 영호남을 통합한 남부와 비남부의 지역적 구분은 ‘우리’ 사용에 있어서 의미있는 편차를 발생시키지 못하였다.
- (iv) 응답자의 나이는 중요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응답자가 젊은 응답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리’ 사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파트’의 경우 노장평균(0), 소장평균(0.18), 청년평균(0.59)를 보였으며, ‘강아지(2인칭)’의 경우 노장평균(0), 소장평균(0.09), 청년평균(0.23)를 보였다. 또한 ‘아들(3인칭)’의 경우 노장평균(0.08), 소장평균(0.27), 청년평균(0.22)를 나타내었다. 고령자가 전반적으로는 ‘우리’ 사용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형님’ vs. ‘동생’의 차이 등 서열관계가 변수가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이 노장평균에서는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 고령자들이 ‘동생’, ‘조카’에서 ‘내’의 사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형님’의 경우 노장평균(0.17), 소장평균(0.5), ‘동생’의 경우에는 노장평균(1), 소장평균(0.55), ‘조카(3인칭)’의 경우 노장평균(0.75), 소장평균(0.5), ‘조카(2인칭)’의 경우에는 노장평균(0.25), 소장평균(0.09)로 대비되었다.
- (v) 또한 남성 응답자들이 여성 응답자들에 비해 ‘우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연령적인 변수를 제거하여 다소 표본이 큰 청년남성과 청년

여성을 비교하면, '아파트'(0.39 vs. 0.67), '차'(0.78 vs. 1), '지도학생'(0.72 vs. 0.93)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어린이나 애완동물의 대해서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 청년여성응답자들이 '우리'를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현상은 여성들이 애완동물이나 어린이에 대한 감정적인 교감이 강해 이러한 것이 이들을 내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더 많다는 해석도 가능할 듯 하다.

위의 설문조사를 크게 정리하면 고령자, 남성의 경우 '우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청년,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내'의 사용이 빈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젊은층의 언어에서 발생한 변화를,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일반적인 사회언어학적 연구를 고려할 때, 단수적 용법의 '우리'의 사용이 한국어에서 점차 소멸되어 가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Chambers 1992, Graddol and Swann 1989 참고)

Singular ‘우리‘

본 조사는 국어와 영어의 소유격의 사용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누라’라고 하는데 이는 공동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따라서, 아래의 문항에 답을 하실 때, “공동의 의미가 아닌” 상황을 가정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가 더 선호되는지 가치판단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언어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____ 아파트로 오세요. [혼자 사는 경우를 가정해서]
가. 우리(저희) 나. 내(제) 다. 똑 같이 선호
2. ____ 아들이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편부, 편모의 경우]
3. ____ 연구실로 가서 얘기 합시다.
4. ____ 사무실로 올래? [단독 소유지만 부하직원이 몇 있는 경우]
5. ____ 차 어디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가족이 혼자인 경우]
6. ____ 남편은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TV만 봐요.
7. ____ 생일은 10월 3일입니다.
8. 술집도 적당한 데 없는데 ____ 집 같까?- [혼자 사는 경우를 가정해서]
9. 아이구 ____ 손주 뽀뽀 한 번 하자. [할머니로서 손자에게]
10. 아이구, ____ 강아지 여기 왔어.
11. ____ 형님이 어제 집에 오셨어요. [막내동생의 경우]
12. 아이구, ____ 새끼 여기 왔어.
13. ____ 지도교수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사항이야.
14. 이번 스승의 날에 ____ 지도학생이 선물한 거야.
15. 어제는 ____ 조카가 찾아 왔었어요. [본인이 유일한 삼촌인 경우]
16. 어제는 오랜만에 ____ 약혼자를 만났어요.
17. ____ 쫄병이 어제 사고를 쳤어요. [본인이 유일한 고참인 경우]
18. 어제는 ____ 부하직원들이 찾아 왔어요.
19. 아이고, ____ 조카 많이 컸구나. [본인이 유일한 삼촌인 경우]
20. 아이고, ____ 장남 많이 컸구나. [본인이 유일한 부모인 경우]
21. ____ 엄마 어디서 못 보셨어요? [외아들의 경우]
22. ____ 할아버지는요? [유일한 손주의 경우]
23. ____ 동생 혹시 못 보셨어요? [유일한 형/누나/언니의 경우]
24. 내가 좀 타쁘니까 세탁소에서 ____ 옷 좀 찾아다 줄래? [혼자 사는 경우]
25. 내가 좀 바쁘니까 ____ 강아지 동물병원에 좀 데려다 줄래? [혼자 사는 경우]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교향:

<표 1>

	전체평균	노장평균	소장평균	청년평균	남자평균	여자평균	청년 남	청년 여
		54년까지	58년 - 66년까지	72년이후				
문항	49명	6명	11명	32명	24명	25명	9명	23명
1 아파트	0.43	0	0.18	0.59	0.23	0.62	0.39	0.67
2 아들(3인칭)	0.21	0.08	0.27	0.22	0.17	0.26	0.17	0.24
3 연구실	0.94	1	1	0.91	1	0.88	1	0.87
4 사무실	0.47	0.83	0.41	0.42	0.5	0.44	0.5	0.39
5 차	0.92	0.67	1	0.94	0.88	0.96	0.78	1
6 남편	0.26	0.08	0.32	0.27	0.29	0.22	0.33	0.24
7 생일	1	1	1	1	1	1	1	1
8 집	0.1	0	0.36	0.03	0.19	0.02	0.06	0.02
9 손주	0.27	0.17	0.09	0.34	0.25	0.28	0.56	0.26
10 강아지(2)	0.17	0	0.09	0.23	0.15	0.2	0.28	0.22
11 형님	0.3	0.17	0.5	0.25	0.35	0.24	0.28	0.24
12 새끼	0.71	0.58	0.64	0.77	0.65	0.78	0.61	0.83
13 지도교수님	0.3	0.33	0.45	0.23	0.38	0.22	0.33	0.2
14 지도학생	0.89	0.92	0.91	0.88	0.88	0.9	0.72	0.93
15 조카(3)	0.54	0.75	0.5	0.52	0.54	0.54	0.44	0.54
16 약혼자	0.96	0.83	0.91	1	0.92	1	1	1
17 쫄병	0.54	0.5	0.45	0.58	0.44	0.64	0.5	0.61
18 부하직원들	0.51	0.33	0.55	0.53	0.54	0.48	0.56	0.52
19 조카(2)	0.16	0.25	0.09	0.17	0.19	0.14	0.22	0.15
20 장남(2)	0.09	0.25	0.09	0.06	0.19	0	0.22	0
21 엄마	0.11	0.33	0.09	0.08	0.15	0.08	0.06	0.09
22 할아버지	0.12	0.33	0.09	0.09	0.13	0.12	0	0.13
23 동생	0.73	1	0.55	0.75	0.67	0.8	0.67	0.78
24 옷	1	1	1	1	1	1	1	1
25 강아지(3)	0.48	0.5	0.45	0.48	0.63	0.34	0.78	0.37

<표 2>

7. 결론

관형어 '우리'는 '내'의 복수형이 아니다. ['우리' + 명사] 구문은 화자가 발화상황에서 현저하게 부각되는 내집단 소속이라는 것을 명시한다. 그리고, 일반 소유격과 달리 '우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지칭하는 개체가 화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이 개체가 내집단과의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서 명사의 의미유형에 따라 이 개체가 내집단의 일원이거나, 이 내집단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거나, 혹은 이 내집단 자체를 나타낸다. 또한, 주제어로서 등장하는 '우리'는 총칭문(generic sentence)에 국한되어 대조적으로 쓰일 때에만 사용된다는 결론도 얻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연령과 성별이 단수적 용법의 '우리' 사용빈도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남성, 고령자일수록 '우리'의 사용빈도가 높아 단수적 용법의 '우리'의 사용이 점차 감소되고 '내'로 교체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결론에도 이르게 되었다.

<참고문헌>

- 남기심, 고영근. 1985.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신기현. 2000. Grammaticalisation of Social Relationship: Deference and Number in Korean. 현대문법학회 2000년 하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 계명대학교.
- 최준식. 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사계절출판사.
- Brown, Pelelope and Stephen C. Levinson.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lson, Gregory N. 1977. *Reference to Kinds in English*.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Published 1980 by Garland Press, New York.
- Chambers, J.K. 1992. Linguistic Correlates of Gender and Sex. *English World-Wide* 13.2: pp. 173-218.
- Graddol, D. and J. Swann. 1989. *Gender Voices*. Oxford: Blackwell.
- Krifka, Manfred, Francis Jeffrey Pelletier, Gregory N. Carlson, Alice ter Meulen, Godehard Link, and Gennaro Chierchia. 1995. Genericity: An Introduction. In Gregory Carlson and Francis Jeffrey Pelletier (eds.) *The Generic Book*.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124.
- Malsch, Derry L. 1987. The Grammaticalization of Social Relationship: the Origin of Number to Encode Deference. In Ramat, A. G., O. Carruba, and G. Bernini (eds.)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storical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pp. 407-418.
- Nikiforidou, K. 1991. The Meanings of the Genitive: a case study in semantic structure and semantic change. *Cognitive Linguistics*, 2: 149-205.
- Poutsma, H. 1914. *A Grammar of Late Modern English, for the use of Continental, especially Dutch, students*. Part II: The Parts of Speech. Groningen: Noordhoff.
- Pustejovsky, James. 1995. *The Generative Lexicon*. Oxford: MIT Press.
- Quirk, Randolph,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and Jan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Taylor, John R. 1996. *Possessives in English: An Exploration in Cognitive Grammar*. Oxford: Clarendon Press.

접수일자: 2003년 9월 22일

게재결정: 2003년 10월 21일